

대 회 사

가을향이 가득한 청명한 기운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한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순간 모두가 한 이웃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짧지만 모두에게 유익하고 깊은 인연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청주, 대전 등, 멀리에서 이곳까지 오신 참가자 분들과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부산지역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뜻 깊은 행사가 원만하도록 진력을 다해주신 부산 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무원스님과 각 지역의 KCRP 대표님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종무실장님과 부산광역시 정경진 부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KCRP는 이웃 종교와의 화합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구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 종단 성지와 유적지를 찾아 체험하는 이웃종교 스테이를 많은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는 올해의 결실들과 성과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이자, 훈훈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처럼 한 공간에 모여 서로 몸을 부딪치고 마음을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향기로운 결실을 나누는 우리 사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는 종교화합을 증진시키는 역사의 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즉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사회활동을 하는 곳에서도 이어진다

면, 종교간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국 각지에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유익한 오늘처럼 앞으로도 이웃종교 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 승